

시론

스크롤의 시대, 도서관은 무엇을 할 것인가



김 선 기 남도인문학연구원장·문학박사

1964년 4월 제정된 도서관 주간이 올해로 62회를 맞는다.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힘'이라는 주제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표면적으로 이는 책을 가까이하는 권유이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우리는 지금, 왜 읽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오늘의 독서 위기는 단순히 책을 덜 읽는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읽는 방식' 자체의 변화에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수많은 텍스트를 접한다. 뉴스의 헤드라인, SNS의 짧은 문장,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자막들. 그러나 그것은 읽기라기보다 '훑어보기'에 가깝다. 생각이 머물 틈 없이 이어지는 스크롤 속에서 문장은 소비되고, 의미는 축약된다. 길게 이어지는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는 집중력, 한 권의 책을 통해 사유를 확장하는 경험은 점점 낯선 일이 되어간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디지털 환경이 만

들어낸 속도의 문제가 놓여 있다. 정보는 빠르게 도착하고, 더 빠르게 사라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만, 정작 하나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은 약해지고 있다. 긴 글을 읽는다는 건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과 인내, 그리고 사유의 깊이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독서 위기는 곧 사유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시 물을 표로 떠오른다. 과연 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많은 책을 들여놓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물론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읽기의 방식 자체를 회복하려는 방향 전환일지도 모른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느리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장소가 돼야 한다.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한 문장을 오래 붙들고,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서관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힘이다. 조용한 열람실에서의 시간, 책장 사이를 거닐며 우연히 마주치는 한 권의 책, 누군가의 추천으로 시작된 독서, 이 모든 것은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다.

최근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

고 있는 흐름 역시 주목할 만하다. 강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여전히 '읽기'가 놓여야 한다. 도서관이 단순한 문화시설로 머무는 순간, 그것은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을 잃게 된다. 도서관의 정체성은 결국 책과 읽기, 그리고 사유에 있다.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힘'이란 이번 주간의 슬로건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작은 행위가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스크롤의 시대에 페이지를 넘기는 일은 어쩌면 하나의 저항일지도 모른다. 빠른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느림과 깊이를 선택하는 일. 도서관은 바로 그 선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서관을 더 자주 찾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르게 읽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일 것이다.

읽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지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도서관 주간은 우리의 읽기 방식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 한 권의 책을 펼치는 그 작은 시작이, 다시 사유의 힘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치칼럼



이 계 앙 광주푸른꿈작업학교 교장 품자주사시민들 공동대표

"언제나 사람 될래!"

4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가끔 하시던 말씀이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흔이 돼 나를 채찍질한다. 일전에 "당신의 상처는 사적이지 않다" (정찬영 저)를 읽었다.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인 저자는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가 폭력과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 치유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불행, 상처, 실책이 개인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권력관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피해자들의 사적 몸부림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일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의를 도모해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도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가자, 이란 등지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이태원, 오송 지하도, 제주항공, 화성 아리랑, 대전 안전 공업 등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자국 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을 위해, 오로지 '자국'과 '나'의 무사와 안일과 영달과 이익을 위해 소외와 배제, 차별과 혐오를 일상화하고 있다. 저 '왕궁 대신에 왕

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며 '조그마한 일에 만 분개하고'(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있다. 사회나 시대의 거대한 부조리와 체제 담론에는 침묵하면서 개인적, 사소한 이익에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타인의 고통과 사회정의에 눈뜨라는 지적이 통렬하고 아프다.

웅장한 개인주의와 이기적 탐성에 사로잡혀 '사람됨'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과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받지, 무시, 무관심한 것은 결국 스스로 '사람됨'을 포기하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됨'을 '사람됨'을 통해 가능하다.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하고 적절한 노릇(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사람됨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으로 역사를 시작한 나라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라는 말은 낱줄과 씨줄에 걸쳐 인간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당위이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연결되어 무엇인가 기여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데서 남의 아픔에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모두가 이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 민

족 공동체가 지향할 궁극적인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민족에게 '사람됨'은 '사람 모두를 이롭게'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만' 이로 위아 한다는 것은 '사람됨'을 부정하는 일이니 여기에서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정찬영은 "개인의 상처는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밭 딛고 선 이 사회의 구조와 타인들의 시선이 겹쳐진 결과"라며, 고통의 연대성을 강조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아픔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와 상통한다. 누군가의 불행, 고통, 아픔이 나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와 총총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최명란의 동시 중 "친구가 간지럼을 태워서 너무 웃다가/나도 친구에게 마구 간지럼을 태웠다/서로서로 간지럼을 태웠다/그러자 둘 다 별로 안 간지러웠다/우리는 분명 연결된 거다", (「우리」 전문, 「우리는 분명 연결된 거다」, 창비)가 떠오른다. "서로 간지럼을 태우면 간지러워도 안 간지럼이 되는" 연결이 사람 관계요 사람됨의 본모습이어야 한다.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의 아픔, 고통, 상처를 경유해 '사람됨'이 가능하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광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명확하다. 서로의 상처를 응시하며 그 연결성을 회복하도록 각성하는 것만이 사람됨을 완성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연대하는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오늘도 미완의 현재진행형이다. 내 아버지의 꾸중이 다시 들린다. "언제나 사람될래!"

독자투고

최근 경찰 현장에서 제각각의 범죄양상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낯선이의 위협보다 더 위협한 것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범죄다. 가족, 연인,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통제,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은밀하게 반복되며 피해를 키운다. 관계성 범죄의 가장 큰 위협성은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쉽게 묵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은 보다 엄정하고 선제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 단계부터 단순

'관계성 범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분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위협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 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발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인다.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불안, 주변의 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한 출발점은 결국 '관심'이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50대이상 맞춤형 정책 절실

올 들어 광주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 꼴로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정년 퇴직과 폐업,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생계 부담 속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심화와 경제 활동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노후 준비는 염두도 못내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만7천48명으로 조사됐다. 연령 대별은 60대(4천906명·29.3%)가 가장 많고 50대(3천826명·22.44%), 30대(2천758명·16.17%), 20대(2천618명·15.35%), 40대(2천587명·15.17%), 70세 이상(244명·1.43%), 10대(19명·0.11%) 순이었다. 5060세대가 과반을 훌쩍 넘어선다. 10년 전인 2016년 43.48%, 그로부터 5년 후인 2021년 45.49%에 2023년 53.17%로 급증했다. 가파른 상승세다. 20~4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이전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1997년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업급여는 도입됐다. 계약 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직

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최근 중·장년의 발길이 잦아졌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자영업 폐업에 따른 수급 문의가 급증했다. 생계를 실업급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로 치닫고 있다.

일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 '경비나 하지' '도 이전 옛말이 됐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실적과 관계 단절, 건강 이상 등 복합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 무기력과 고립감은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사정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중증 장애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 성장은 더 정체되고 일지라는 더 위축될 것이다.

남은 것 뿐이라는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전문가들은 광주의 경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서비스, 건설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물가를 제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이 시급하다.

이번엔 역명 공모 잡음 불거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19년 10월 시작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상무역-백운동-남광주역-광주역)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엔 역명 설문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실시된 조사는 각각의 역마다 제시된 3개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데, 기타 항목에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모두 1만4천명 가까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기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적절성 시비가 제기됐다. 단적으로 209번 역의 경우 풍양생활체육공원역 45.2%, 금당산입구역 27.9%, 질봉산역 8.4% 순이었으나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등을 표기한 기타가 18.5%에 달했다.

보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나머지 17개 역의 기타 답변이 12~28%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일각에선 용역을 거쳤다고 해도 지역 인지도나 생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아울러 설문이 거주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18곳 전체를 대상으로 답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18개 역 가운데 14개 역에서 1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이른바 '상당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익성과 상징성, 역사성 등을 고려했다며 단지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사기업은 이전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설문결과가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중증을 기해야 한다. 2호선 공식 역명 설문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못내 아쉽다고 하겠다.

1단계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1년 간의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말 공식 운행에 들어간다. 유동적이긴 하나 2단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침단지구-시청)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선 구조로 기존 1호선과 환승체계를 구축해 광주 전역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미래 교통의 핵심 인프라로 재편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도시철도 역의 명칭을 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높은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선 안 된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되길 바라는 것이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전설 바다의 밤물결」

-장이지

골목이 어제보다 어둡다 그것은 골목 초입의 빨래방이 어제보다 어두운 탓이다 빨래방이 어제보다 어두운 것은 한 사람이 빨래방에 있어서다 그 사람의 앉은키만큼 노란빛이 사라져서다 통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의 등을 오래 쳐다본다 그 사람의 등으로가서 등의 중심으로가서 나는 백열등을 하나 켤 수도 있으리라 백열등 아래 어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 거기서 인두감을 벗고 부끄러운 비늘을 드러낼 수도 있으리라 나는 밤물결을 누비는 인어가 된다 목소리를 잃는 대신 한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야 빨래방에 앉아 있다 그러한 과거를 떠올리면서

-출처: 「오리배가 지나간 호수의 파랑」, 아침달, 2025. \*어둠이,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서 오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사람이 목소리를 잃기로 작정하고, 등을 잃기로 작정하고,

까지달까지 둥구어 선 자세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어느 자리에 앉아 부끄러운 비늘을 닦아 보려고 작정한 때문에, 모두가 그럴 마음으로 빨래방에 앉는 시간이 있어서 어둠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거품 방울 터지는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 전설 바다의 밤물결 속으로 모두 돌아갔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인어로 환생해야 했겠지.

빛을 막아선 삶의 어느 일이 때면 부끄러워 하나들 백열등을 켜고 그들의 빛이 모두 모이면 어둠은 물러간다.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서가 아니다. 우리가 빛을 막아섰다가 인어가 되었던 일을 세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런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걸까.

<천제신 시인·비평가/편집 <초록의자>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내선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